

# 이랜드, 대구에 코로나19 지원기금 10억원 전달

## 대구지역 방역물품·생필품 지원

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에 10억원의 긴급 기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랜드는 대구지역 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금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 이랜드는 대구 지역에 테마파크인 이월드와 유통업체인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 복지재단 정재철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랜드가 운영중인 대구 이월드 내에 83타워 전경. /이랜드그룹

한편, 이월드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일부 지점(구마·

수성·본·강북점, nc아울렛 엑스코·경산점)에 대해 오는 24일 휴점 후 방역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코로나19’와 금융의 역할



## 기지 수첩

홍민영 (파이낸스&마켓부)

‘코로나19’의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새벽을 기점으로 123명이 늘어 총 556명이 됐다. 사망자도 4명으로 늘었다. 전례없는 공포에 길거리엔 사람의 발길이 끊겼고,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다.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광 관련 업종은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담 지원은 지난 18일까지 8영업일간 5683건, 약 3228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지원 규모 역시 초반 나흘간 800억원에서 빠르게 늘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근원지인 중국과 관련한 피해가 컸다면, 이제는 얼어붙은 내수시장에서 피해가 본격화됐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은 이런 때일수록 빛을 발해야 한다. 국

민의 삶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금융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사들은 본격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는 양상이다.

IBK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은행이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30% 인하한다. 또 KB국민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시와 경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넷·스타뱅킹·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며,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및 소외계층 지원을 실시한다.

이윤 창출과 디지털·글로벌 등 경영 패러다임의 변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급한 국가적 문제 상황에 직면한 국민을 돕는 것이 곧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임에는 틀림없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로 어수선한 금융권이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국민과 상생하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때가 됐다.

hong93@metroseoul.co.kr

# LG전자, 고진영 프로골퍼 후원... ‘LG 시그니처’ 알린다

LG전자가 여자 골프 최강자 고진영 선수(사진)를 통해 시그니처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2022년까지 고진영 선수를 공식 후원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 선수는 계약기간 ‘LG 시그니처’ 로고가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 경기에 출전하게 되며, 시그니처 브랜드 홍보 대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고진영 선수의 뚜렷한 목표의

식과 도전 정신을 높게 평가해 후원을 결정했다. 활동 무대가 주로 해외에 있어, 글로벌 고객에 시그니처 브랜드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고 선수는 “LG전자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세계 무대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선보여 LG전자의 후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LG 시그니처 론칭 후 2017년 ‘에비앙 챔피언십’ 공식 후원에 이



어 정상급 선수들을 후원하며 골프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오늘의 운세 2월 24일 (음 2월 1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농으로 한 말이 진실로 한 말 같으니 말조심. **48년생** 적금 터트 목돈이 들어온다. **60년생** 이혼은 신중히 현재 부인은 아진 아내이다. **72년생** 오후는 한가롭다. **84년생** 달콤한 말로 하는 협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37년생** 손수가 먼 친척이 와서 안부를 묻는다. **49년생** 자녀들 집안에 항상 웃는 소리가 이어진다. **61년생** 평생 미련해서 유통성이 없어 한숨. **73년생** 인생은 이런들 어찌하리 저런들 어찌하리오. **85년생** 어제 일고 시작하자.

**38년생** 입은 은혜가 생각나지만 갚을 길이 없다. **50년생**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62년생** 객지에서 고향 생각에 밤을 지새운다. **74년생** 건강한 신체를. **86년생** 용모가 너무 아름다우면 명이 짧다 했으니 성형주의.

**39년생** 재주가 화려했으나 뜻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 **51년생** 꿈에서 황금을 얻었다면. **63년생** 내일 일을 미리 계획해두자. **75년생** 친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모르는척하지 않도록. **87년생** 공부만 방해와 성 같은 물산.

**40년생** 남의 비위를 맞추려나 자신의 책임. **52년생** 집을 지으려면 기본설계에 충실. **64년생** 이루지 못한 꿈은 늘 아쉬움. **76년생** 사고는 예기치 않게 오니 미리 보험을 들도록. **88년생** 따옴기를 그리려다 집오리를 그리는 격.

**41년생**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 방향을 찾아보자. **53년생** 종일 외로운 나그네 신세. **65년생** 부모님의 생신이니 가르침에 감사. **77년생**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리운 사람이 생각. **89년생** 한사람에게만 많은 장점을 주지 않는다.

**42년생** 나이 들수록 지출은 많아진다. **54년생** 머리와 꼬리 없는 생선만 낚는다. **66년생** 미안박명이나 지금부터라도 모아놓도록. **78년생** 부모님의 재산이 많더라도 없어질 때를 대비해야. **90년생** 사소한 일에 꼭 대들지 마라.

**43년생** 자식에게 거절만이 능사는 아닌데 방법이 없다. **55년생** 보함이 무엇보다 효자 노릇을 한다. **67년생** 흔한 지식을 소중히만 여기지 않도록. **79년생** 산란하게 하니 일찍 귀가. **91년생** 뱃속 깊이 사무친 원수를 만나는 날.

**44년생** 부자는 가족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데서. **56년생** 그린벨트가 해제되니 황재운. **68년생** 억지 부리지 말고 말머리를 돌려라. **80년생** 집 없는 거지가 하늘을 동정하는 격. **92년생** 새벽부터 상승세니, 오늘은 결과를 얻는다.

**45년생** 죽느냐 사느냐에서 살게 된다. **57년생** 어느 시대나 세대 차이는 있었다. **69년생** 시작서는 쓰지 말고 출근하라. **81년생** 상관없는 일에 참견 말고 물건 정리하여 재고 파악할 것. **93년생** 신발 끈을 잘 매고 출발할 것

**46년생** 무슨 일을 하려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58년생** 부모공경이 대를 이으니 감사. **70년생** 이득이 덩굴째. **82년생** 강아지도 사람 카우는 만큼 애정이 있어야 한다. **94년생** 업무의 요점을 정리하여 효율을 높여보라.

**47년생** 보람없이 헛되게 나이 먹은 것이 아니다. **59년생** 목이 말라도 샘물을 몰래 마시지 않는 정직함. **71년생** 진퇴양난 속수무책이다. **83년생** 조건이나 이치에 맞는 계약인지 잘 살피라. **95년생** 조직에서 젊음수목 겸손하라.

# 김상희의四季

## 늘 입춘대길이 되길



지난 첫 일요일 늘 예정대로 2월 법회가 열렸다. 어김없이 입춘을 앞두고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이라고 쓴 첩지를 신도분들께 나눠 드렸다. 입춘 절기를 맞아 행하는 전통은 풍속을 뛰어넘어 하나의 작은 신앙과도 같다.

입춘날 신도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첩지를 대문이나 현관문에 붙였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중국은 물론 그 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필자의 신도 중 한 분은 목감기가 심하여 기침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가 좋지 않았다.

우한 폐렴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법회 참석을 못 하게 됨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박쥐를 숙주로 하여 퍼졌다 했다. 먹는 것이라면 그 어떤 재료도 마다치 않는 중국인들의 관습이 또 한 번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쥐는 쥐와 비슷한 모양새로서 어두운 동굴 습기 찬 곳에서 생활한다.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창궐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어 나갔듯 경자년은 쥐(또는 박쥐)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이 돈다. 경금(庚金)은 폐 대장에 해당이 된다. 자(子)의 쥐(박쥐)가 병을 옮기는 것이다.

음력 2월이 되면 다소 안정세지만 3월(眞)까지는 안심할 수 없고 7월(申)에도 물난리가 나며 또 다른 전염병이 예상된다. 60년 전에도 120년 전에도 그러했고 앞으로 60년 지나는 경자년에도 비슷한 현상은 다시 찾아온다. 위생적으로야 청결하게 영양을 취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가정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발원하며 기도를 올리고 써 내려간 입춘지는 그야말로 행운의 부적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늘 다독인다면 말 그대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되어가리라.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 힘**

	5	3		2	6
3					4
2			5		
		1			3
4					2
6	3		2	1	



BTS Kpop Kings  
방탄소년단 케이팝 킹스  
황현 브라운 저 | a9press | 15,000원

## 문제풀이:

3X3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의 숫자가 2X3 스도쿠는 가로,세로,2X3박스에 1부터6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9	
	9	7	4	5	3
3		8	1	7	
8			1	9	2
	2	9	7	4	3
	3	5	6		8
9			4	7	5
2	7		5	8	4
		4		9	

## 정답

9	1	2	7	8	9
2	9	8	9	1	7
8	7	9	1	2	9
1	8	9	9	7	2
7	9	1	2	9	8
9	2	7	8	9	1

9	2	1	6	8	7	8	9
6	1	7	9	8	9	8	2
8	8	9	2	7	1	9	6
7	6	1	8	2	9	9	8
8	9	8	7	9	2	6	1
9	2	7	6	8	1	9	8
7	2	9	1	6	8	9	8
1	8	9	7	2	1	6	9
2	9	6	8	9	8	2	1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390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494호